

새벽종

2025 09+10 제22호

Magazine

# 새벽종

2025 09+10 제22호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더 많은 〈새벽종〉을  
만나보세요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

World 세계로!



**THEME**  
세계와 함께 걷는 길, 지구촌새마을운동

지구 반대편 낯선 마을에서도,  
이웃을 돌보고 함께 일구는 마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국경을 넘어, 문화와 언어를 넘어  
지역의 자립을 돕고 희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 [youtube.com/@새마을운동중앙회](https://www.youtube.com/@새마을운동중앙회)  
@ [instagram.com/letssaemaul](https://www.instagram.com/letssaemaul)  
f [facebook.com/letssaemaul](https://www.facebook.com/letssaemaul)  
blog [blog.naver.com/letssaemaul](https://blog.naver.com/letssaemaul)  
pf.kakao.com/\_zNxknT



## 우리다

### 14

함께 공감  
새마을운동의 지구촌화  
의미와 제언

### 06

새마을 줌인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글로벌협력국장관회의

### 16

반가운 울림  
글과 그림에  
새마을정신을 담아내다

### 10

새벽종 소리  
국경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  
세계로 확산되는 대한민국의 경험

### 20

새마을운동 일기  
무르익어 가는  
새마을운동이라는 열매

## 깨우다

### 30

청년 새마을 특  
청년들의 땀과 웃음으로

### 22

새마을 인터뷰 1  
버려진 것들은 새롭게  
모아진 마음은 따뜻하게

### 34

지구촌새마을, 함께  
새마을정신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26

새마을 인터뷰 2  
손끝으로 빚고,  
진심으로 잇는 시간

### 36

희망 에세이  
황금빛 들녘에 피어나는 칭찬  
온정과 칭찬으로 물드는 공동체



#### Cover Story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리와 같은 희망의 빛이 움튼다. 새마을운동은 국경을 넘어 지구촌 곳곳에 연대와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작은 손길에서 시작된 실천은 국경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나누는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촌새마을운동이 이 세상에 기적을 만들어갑니다.

## 만나다

### 44

새마을 포커스

### 38

섬표 여행  
가을빛이 내려앉은 도시, 정읍

### 42

생생정보  
책 속에서 배우는  
새마을정신의 가치

### 56

새마을 라운지





## 세계에 퍼지는 새마을운동의 힘

2025 새마을글로벌협력국장관회의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2025 새마을글로벌협력국장관회의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가 지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경주시 라한셀렉트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이자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전 세계 46개국의 장·차관과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성과를 공유하며, 지구촌 공동번영과 미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글. 윤민지 사진. 홍민기

### 46개국이 함께한, 지구촌 새마을의 큰 울림

지난 9월 17일, 경주시 라한셀렉트에서 ‘2025 새마을글로벌협력국장관회의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가 열렸다. 현장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로 붐볐다.

2014년 시작된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는 올해로 12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해외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고 각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국가별 지역개발 정책을 모색했다. 참가자들은 지구촌 공동번영과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을 논의하며 의미를 더했다. 개막식에서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깃발을 선두로 46개국 국기를 든 새마을지도자들이 차례로 입장했다. 각국 깃발이 무대에 들어설 때마다 현장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했다. 특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적도기니,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이 새롭게 합류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적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대회에는 김광림 중앙회장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마리아노 아사나미 사비노 동티모르 부총리, 사키야시 라이 세부 디토카 피지 장관, 빅토리아 루소케 부싱게 우간다 국무장관 등 46개국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또한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대표단, 새마을협력관, 주한대사, ODA 관련 기관, 외국인 유학생 등 500여 명이 함께해 국제 교류의 장이 됐다.



## 지속가능한 미래, 새마을운동이 여는 여정

김광림 중앙회장은 개회사에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공동체 발전과 빈곤 극복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며, “새마을운동이 자유와 평화, 번영을 향한 인류의 여정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만남이 단순한 경험 공유를 넘어 각국의 발전 전략에 새마을정신을 접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국제 협력과 공동번영을 당부했다.

이어진 축하에서는 각국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마리아노 아시나미

사비노 로페즈 동티모르 부총리는 “새마을운동을 농촌 개발에 접목하고 있으며, 새마을정신은 공동체 의식과 자발성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우간다의 빅토리아 부신게 루소게 장관은 “새마을운동이 이미 우간다 마을 발전 모델로 뿌리내려 소득 증대와 청년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구촌새마을운동 확산에 기여한 다섯 명의 새마을지도자가 특별 포상을 받았다. 수상자는 동티모르 올데리코 도 로사리오 마리아 다 실바 협력관, 키르기스스탄 아를리나에 마을 에르멕 쿨레토브 지도자, 우간다 자생마을 은주바 엘리사 지도자, 파푸아뉴기니 카푸쿠 마을 루티에 마테호 지도자, 라오스 농림부 품미 인티척 지도자다.



우수사례 발표에 나선 동티모르의 올데리코 도 로사리오 마리아 다 실바 협력관은 “주민 참여형 방식으로 마을 정화, 소득 창출, 신용 시스템, 식수·위생 개선 등을 추진한 결과 소득이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전했다. 그는 향후 한국의 지속적 지원과 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행사의 마지막은 새마을운동의 희망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김광림 중앙회장과 김민재 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해외 귀빈들이 ‘함께 새마을운동’ 문구가 새겨진 기둥에 녹색 잎을 꽂자 무대가 환한 빛으로 물들며 새로운 비전을 밝혔다. 이어 새마을노래 합창으로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고,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는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다.



## 함께의 힘, 모두가 잘 사는 세상으로

오후에는 ‘새마을글로벌협력국장관회의’가 열렸다. 지난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46개국 중 33개국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각국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모델과 자생적 확산 현황을 공유하고, 아직 시범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까지 논의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33개국 가운데 18개국은 시범마을 모델화와 자생적 확산 경험을, 15개국은 농촌 개발 정책과 새마을운동 연계 방안을 발표하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광림 중앙회장은 기조 발제에서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를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시킨 힘”이라며 “새마을운동을 통해 세계 각국이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헬렌 에잇시 주한 파푸아뉴기니 대사는 “2012년부터 새마을운동을 도입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며 “2023년 대한민국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이를 국가 정책으로 확대해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밝은 미래, 새마을운동이 열어가는 변화

18일에는 오전부터 다양한 세미나가 이어졌다. 대륙별·국가별 지구촌새마을운동 우수 사례와 지역·농촌 개발 정책을 공유했으

며, 오후에는 UN거버넌스센터와 공동 세미나를 열어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지역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오전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중남미로 구분된 3개 세미나가 120분간 동시에 진행됐다.

아시아 세미나에서는 아나스 딸호우니 요르단 SGL 대표, 안동 어거스트 멜로디 필리핀 SGL 대표, 이재원 라오스 그린굿즈 대표, 위라지 삼파 스리랑카 새마을재단 사무소 관계자가 참여해 새마을운동이 농촌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 아프리카 세미나에는 은주바 엘리사 자생마을 지도자, 벨슨 만델라 부룬디 협력관, 문상권 KOICA 실장, 나오아다히 농식품산업부 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마을운동을 국가 발전 모델로 평가하며, 지역 현실에 맞는 전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오세아니아·중남미 세미나에서는 벤 부쉬바타 마을 지도자, 카를라 루카스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관계자, 우라이아 피지 나부소 농업학교 교장, 유은하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각국의 농촌 개발 정책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심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2025 새마을글로벌협력국장관회의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는 새마을운동이 여전히 전 세계 빈곤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의 원동력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참가국 리더들은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공동의 미래 비전을 함께 다졌다. 🌱



# 국경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

## 세계로 확산되는 대한민국의 경험

### 새마을정신이 만든 지구촌 자립 모델 시범마을에서 시작된 변화

중앙회는 2012년, 한국의 경험을 각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한 ‘지구촌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외부의 지원으로 꾸며지는 개발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배우고 지속하는 자립형 발전을 목표로 했다. 근면, 자조, 협동, 새

새마을운동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메시지다. ‘함께하면 변화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이 작은 기적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더 큰 희망으로 자라나고 있다.

글. 편집실

마을정신은 지금도 세계 수많은 마을에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희망의 모델이 되고 있다. 무너질 것 같던 공동체가 다시 손을 맞잡고, 불가능해 보이던 길이 열리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길이 밝아지고 있다.

지구촌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은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개발’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스스로 이어가는 발전’을 지향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존감을 되찾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며,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간다.



키르기스스탄 시범마을 및 자생마을 모니터링 점검

###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을 만드는 힘 성과에서 미래로

지구촌새마을운동의 가치는 단순히 새마을운동을 세계에 알린 데 그치지 않는다. 시범마을이 걸어온 변화를 꾸준히 살피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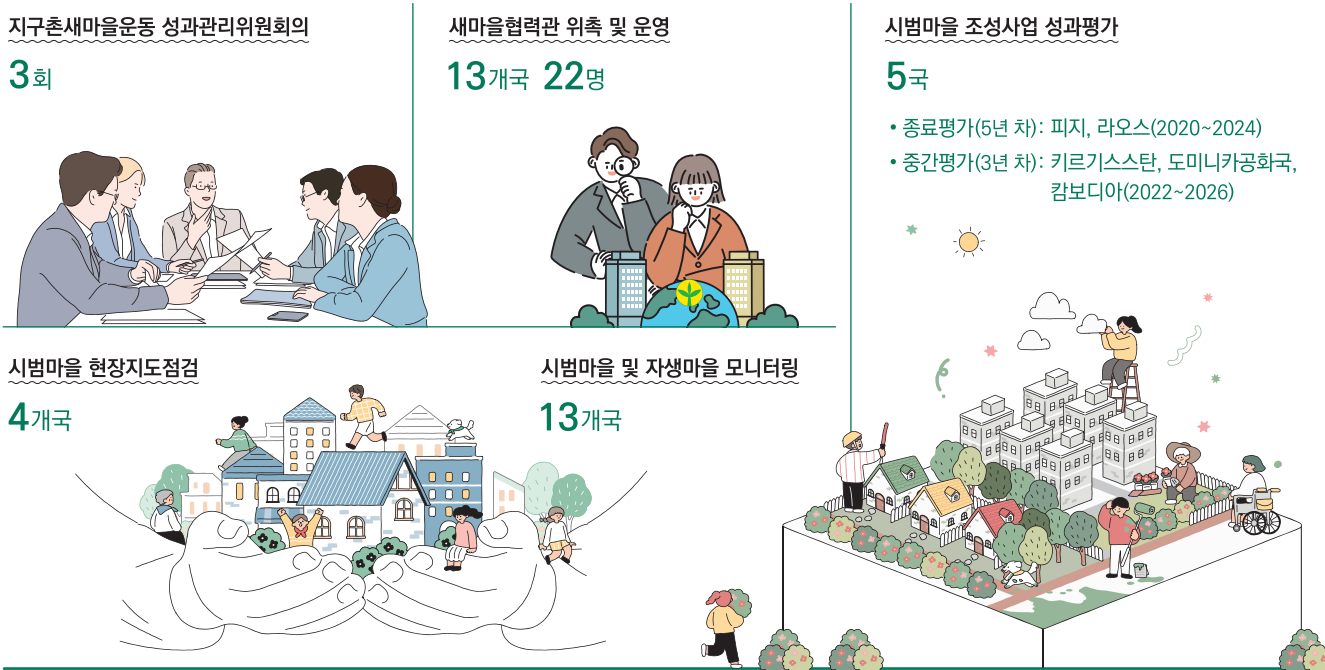
속가능한 동력을 만들어 간다. 이는 단순한 성과 평가가 아니라,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주민과 함께 검증하고 그 교훈을 다음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자립과 확산의 속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2025 지구촌새마을운동 시범마을 현황(11국 53개 마을)

2025년 기준

| 구분   |         | 마을                                                               | 시범사업 기간          |
|------|---------|------------------------------------------------------------------|------------------|
| 대륙   | 국가      |                                                                  |                  |
| 아시아  | 동티모르    | 벨로이 마을, 비켈리 마을, 레퀴투라 마을, 셀로이 카라익 마을(4개 마을)                       | 2021~2025년, 5년 차 |
|      | 키르기스스탄  | 탐가 마을, 아를리나에 마을, 오록 마을, 악자르 마을(4개 마을)                            | 2022~2026년, 4년 차 |
|      | 캄보디아    | 프레이 로미트 마을, 오목톡 마을, 룬돌 뜨메이 마을, 춘령 음루 마을(4개 마을)                   | 2022~2026년, 4년 차 |
|      | 타지키스탄   | 파이즈바흐쉬 마을, 굴르레자 마을, 나브바호르 마을, 하요티 나브 마을(4개 마을)                   | 2024~2028년, 2년 차 |
| 아프리카 | 부룬디     | 은아비라바 마을, 부소로 마을, 루게레게레 마을, 루지바 마을, 은아비시가 마을, 부케예 마을(6개 마을)      | 2023~2027년, 3년 차 |
|      |         | 카루라마 마을, 지칭가 마을, 키데레게 마을, 루에루 마을(4개 마을)                          | 2025~2029년, 1년 차 |
|      | 우간다     | 칼라갈라 마을, 캉구루미라 마을, 키우구 마을, 카삼비야 마을, 키왈라시 마을, 세타 마을, 수나 마을(7개 마을) | 2021~2025년, 5년 차 |
|      | 잠비아     | 샤쿨라 마을, 므와치비아 마을, 난두바 마을, 난센가 마을(4개 마을)                          | 2023~2027년, 3년 차 |
| 태평양  | 탄자니아    | 마젠지 마을, 캉가가니 마을, 간도 마을, 웅구니 마을(4개 마을)                            | 2024~2028년, 2년 차 |
|      | 파푸아뉴기니  | 카무페레 마을, 민다 마을, 카페투구 마을, 파고노피 마을(4개 마을)                          | 2024~2028년, 2년 차 |
| 중남미  | 온두라스    | 보까 델 몬테 마을, 엘 세로 마을, 엘 빠드레갈 마을, 엘 오코팔 마을(4개 마을)                  | 2024~2028년, 2년 차 |
|      | 도미니카공화국 | 아토 마요르 마을, 로스 까까오 마을, 사바나 라르가 마을, 사바나 물라 마을(4개 마을)               | 2022~2026년, 4년 차 |

2024년 기준







2025 도미니카공화국·온두라스 초청 새마을교육 연수생들

##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리더를 키우다 외국인 새마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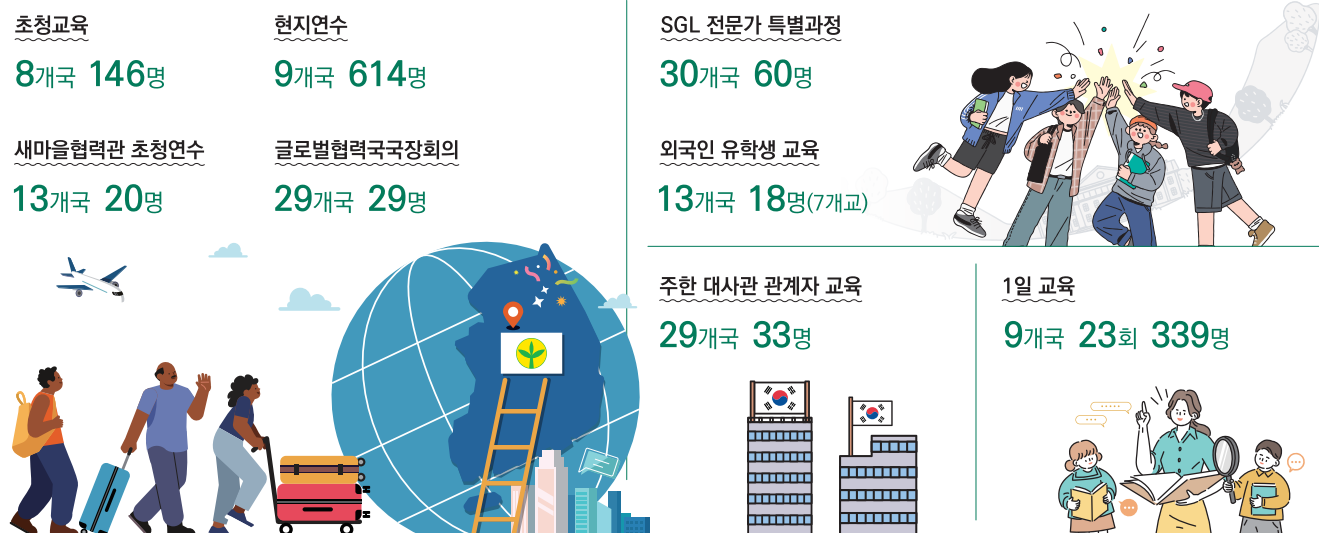
새마을운동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나라와 세계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외국인 새마을교육을 통해 각국 주민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경험과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국의 공무원과 마을 주민을 초청해 대한민국

의 발전 경험을 직접 전수하는 초청교육과 현지연수는 큰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이론과 사례 강의, 현장 견학 등을 결합해 협력국 주민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마을운동의 현지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글로벌협력국장차관회의, SGL 전문가 특별과정, 주한 대사관 관계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현장과 정책, 나아가 외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지구촌새마을운동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가고 있다.

2024년 기준



## 새마을정신으로 하나 된 지구촌 51개국을 잇는 연대, 2025 SGL 총회 성료

중앙회는 새마을정신을 공유하는 46개국을 하나로 연결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도모하는 세계적 네트워크,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를 운영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의 핵심 행사인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총회에는 회원국 가운데 30

개국 대표단이 참석해 지구촌새마을운동의 주요 실적을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신규 가입국 승인과 이사국 선출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2025년 총회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더해졌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새마을 해외아동 결연 후원사업의 후원금 전달식이 함께 진행되며 나눔의 가치를 전했다. 또한 5개국의 신규 가입이 승인돼 SGL은 더욱 넓은 지구촌 연대로 발전하게 되었다. 🌍



2025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 총회

2024년 기준





# 새마을운동의 지구촌화 의미와 제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이 일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가 하면, 기후 위기와 국제 분쟁은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다. 변화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한국이 세계와 나눌 수 있는 고유한 해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현대화의 원동력이자 공동체 개발의 성공 사례로서, 새마을운동은 오늘날에도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대안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글. 박종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과 우리의 대응

오늘날 우리는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를 겪고 있다. 이처럼 국제 질서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할수록, 국제적 영향에 민감한 우리나라로서는 보다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대응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을 둘러싼 국제적 흐름 속에서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한류'의 세계적 확산이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한류의 상승세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섰다. 한류란 한국이 가진 문화·예술적 매력뿐만 아니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역동적 경제 발전과 독창적 개발 경험까지 포괄한다.

특히 새마을운동은 개도국들에게 점점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하는 국제 협력체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에는 이미 4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개도국이 꾸준히 늘고 있다.

## 새마을운동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유

1970년대 한국 농촌개발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지금 국제적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촌 개발은 개도국에게 절실하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점. 둘째, 새마을운동이 그 난제를 풀어낸 보기 드문 성공 사례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케이팝의 경우처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새마을운동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국제사회에서 호응을 얻는 배경에는 보편적 개발 원리가 자리한다. 이는 단순히 과거 한국의 사례로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개도국 농촌개발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이 주도한 통합적 농촌개발(IRD) 프로그램을 비롯해 여러 국제 농촌개발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중단된 것과 달리, 새마을운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낳았다. 무엇보다도 새마을운동은 농촌 주민을 외부 지원의 수혜자가 아니라,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실천하는 주체로 세웠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별성을 지닌다. 의식 개혁을 중심에 두고, 경쟁의 원리를



2025 캄보디아 새마을 해외봉사단



2025 동티모르 새마을운동 초청연수생들의 견학 모습

접목해 전국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실천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근법이야말로 개도국 현실에 부합하는 강점이다.

## 지구촌새마을운동의 시사점

이제 우리가 성찰해야 할 부분은, 정작 한국 사회가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혹시 새마을운동을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의 유물 정도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유산의 가치는 보존 태도에 달려 있다. 역사적 유물도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잘 보존하느냐에 따라 현재적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최근 2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에서 느낀 점은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아끼고 잘 보존해 왔기에 오늘날 더욱 빛나는 유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이미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기록 보존에만 있지 않다.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해 여전히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개도국이 그 결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관심 제고와 더불어 구체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비결 가운데 하나는 인적 자본을 핵심 수단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개도국에 절실한 것은 '전인적 인간개발'이다. 이는 단순한 학교 교육을 넘어 근로 윤리, 의식 개혁, 공동체 정신, 시민 의식, 리더십 함양을 모두 포괄한다. 새마을운동은 이 네 가지 요소를 아우르는 귀중한 경험이자 자산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개발의 지혜다. ✚



# 글과 그림에 새마을정신을 담아내다

임지범 라이브 드로잉 작가 & 김무진 캘리그래피 작가



← 임지범 작가의  
새마을운동 55주년 기념  
라이브 드로잉 영상



← 김무진 작가의  
새마을운동 54주년 기념식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영상

새마을운동을 멋진 예술로 풀어낸 두 작가를 만났다.  
올해 ‘새마을운동 55주년 기념’ 라이브 드로잉 영상에  
참여한 임지범 작가와, 지난해 전라남도새마을회의  
‘새마을운동 54주년 기념식’ 무대에서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를 선보인 김무진 작가가 주인공이다.  
두 사람은 각각의 방식으로 새마을운동을 시각화하며,  
예술 안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과 경험을 했는지 들려주었다.

글. 이원복 사진. 홍승진, 전경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걸려 있는 임지범 작가의 작품



지난해 전라남도새마을회 ‘새마을운동 54주년 기념식’에서 보여준 김무진 작가의 작품

임지범 라이브 드로잉 작가



김무진 캘리그래피 작가



**Q. 지난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멋지게 꾸며주신 두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임지범** • 안녕하세요. 유화 작품과 라이브 드로잉, 벽화를 그리  
고 있는 임지범입니다. 저는 비 오는 날 바닥에 고인 빗물에 비친  
빛의 풍경을 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추상’과 ‘극사실’ 두 가지  
시점이 동시에 담긴 것이 특징이죠. 최근에는 벽화와 라이브 드  
로잉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며 새마을운동중앙회를 비롯해 공  
군, 국가보훈부, 경산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다양한 기  
관과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김무진** • 캘리그래피로 활동하고 있는 김무진입니다. 제 작품이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길이길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퍼포먼스와 개인 작품  
전시회를 열며, 마음을 담은 글씨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  
복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한국글씨예술멘토링협회(KCMA)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글이 하나의 문화와 예술로  
정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죠.

**Q. 180만 명의 새마을가족들이 두 분이 보여주신  
새마을의날 기념 라이브 드로잉과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작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지범** • 라이브 드로잉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발자취를 한 그림  
에 담아내는 영상을 촬영했어요. 영상의 길이는 5분도 채 안되  
지만, 실제로는 12시간에 걸쳐 그렸어요. 컷 수로는 60컷 정도  
되는 그림이라 체력적으로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작업  
이었죠. 새마을운동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담아  
내야 했기에 직접 자료를 찾아보면서 꼼꼼히 준비했어요.

**김무진** • 저는 지난해 전라남도청에서 열린 전라남도새마을회  
‘새마을운동 54주년 기념식’ 무대에 직접 올라 ‘새마을지도자가  
만들어가는 전남 행복시대!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희망!’이  
라는 대형 문구를 쓰는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를 보여드렸어요.  
이 문구가 가진 힘을 어떻게 해야 역동적으로 표현할지를 중점  
적으로 고민했죠. 새마을운동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희망’이  
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강조하고자 가장 마지막에 큰 글씨로  
쓰면서 퍼포먼스를 선보였죠.



**Q. 정말 멋진 작품들을 보여주셨는데요. 두 분이 작가가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임지범** •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그림이 좋아서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거든요. 유치원 시절부터 학원에 다니며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서양화를 전공하면서 작가가 됐습니다. 저에게 그림은 나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기도 해요. 과정에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김무진** • 저는 처음 다큐멘터리 PD로 일을 시작했어요. 예고편을 제작하던 중, 어느 순간부터 제목과 자막에 쓰이는 글꼴(글씨체)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글씨체를 쓰느냐에 따라 영상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전달력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직접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캘리그래피와 현대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는 관객과 호흡한다는 점에서 행위예술에 더 가깝습니다. 음악에 맞춰 글을 쓰고 다양한 의미를 담아내는 과정이 가장 큰 매력이죠.

**Q. ‘새마을의 날’ 기념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또 작품을 준비하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 있을까요?**

**임지범** • 새마을운동 55주년 기념 라이브 드로잉 준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어요. 작업을 준비하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해 알아갈수록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발전을 위해 힘써왔고, 지금은 탄소중립과 건강한 공동체 등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일회용품 덜 쓰기, 분리배출 잘하기처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무진** • 저 역시 퍼포먼스를 준비하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개념과 역사를 더 찾아봤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임지범 작가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사회 발



캘리그래피 작업 중인 김무진 작가

전을 위해 큰 노력을 이어 왔더라고요. 무엇보다 학생부터 청년, 중장년까지 정말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Q. 작품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작품을 준비하실 때 어떤 것에 가장 집중하시나요?**

**임지범** • 많은 컷의 그림을 정해진 면적 안에 담아내야 하다 보니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부분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들어가지 않아야 하죠. 그래서 시안 단계에서부터 아주 꼼꼼하게 작업을 준비합니다. 시안이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드로잉을 시작하면 완성된 모습을 떠올리며 그 하나에 집중해 몰입하죠. 체력 소모가 큰 작업이기도 해서 컨디션 관리 또한 필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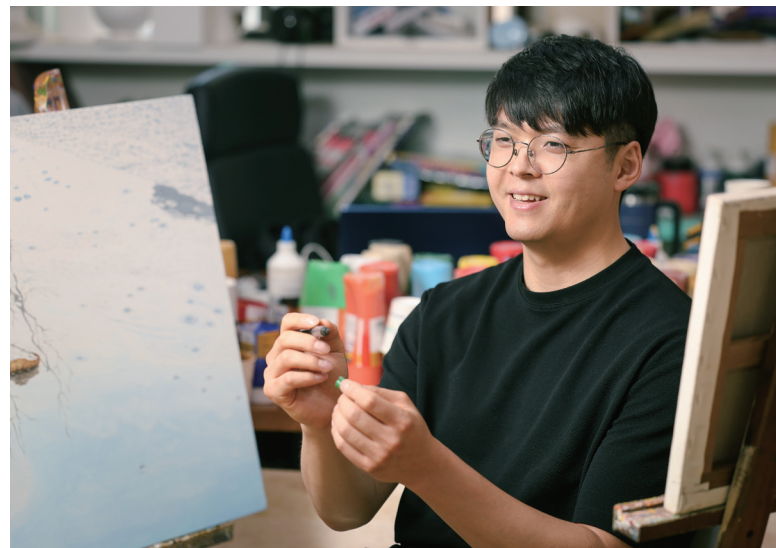
**김무진** •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는 현장에서 관객과 호흡하며 완성되는 공연이다 보니 관객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쓴 글씨와 멋진 그림은 기본이고, 그것을 제한된 시간에 완성해야 하죠. 공연 시간이 길면 마음 편하게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 관객들은 지루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완성도와 관객의 반응 모두를 충족하는 지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Q. 작품과 공연의 특성상 한 번의 실수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혹시 실수했던 경험이나 위기 상황을 재치 있게 넘겼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임지범** • 다행히 저는 실제로 관객 앞에서 작품을 그리는 게 아니라서 김무진 작가님보다는 긴장감이 덜하지만, 라이브 드로잉처럼 오랜 시간에 많은 양의 그림을 그릴 때는 체력적인 한계로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죠. 작은 실수라면 순간의 기지를 발휘해 다른 그림을 이어 그리기도 하는데, 큰 실수라면 멈추어 충분히 정비한 뒤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김무진** •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는 관객에게 잘 보이도록 위해 90도로 세워진 천에 큰 붓으로 글씨를 쓰다 보니 먹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흐른 것은 자연스럽게 더하지만 가끔은 지



그림을 그리는 임지범 작가

나친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경험했던 아찔한 실수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한번은 먹물이 아주 중요한 글자 위로 흐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걸 손으로 막았어요. 다행히 현장 아나운서의 재치 있는 진행 덕분에 위기를 잘 넘겼지만, 다시 생각하면 식은땀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먹물의 양을 조절하는 데도 꽤 신경 쓰고 있습니다(웃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Q.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가실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임지범** • 바빠서 잠시 쉬고 있었던 개인전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제가 바라본 세상의 색다른 모습과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으로 찾아볼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라이브 드로잉과 벽화 작업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무진** • 앞으로도 계속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 한글의 멋과 힘을 알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한글이 지닌 힘을 믿거든요. 단순히 말을 기록하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한글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로 한글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이어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새벽종> 독자들과 새마을가족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임지범** • 새마을운동을 이어온 한 분, 한 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능력과 힘이 모여서 새마을운동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고, 이제는 세계로도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멋진 모습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김무진** •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새마을가족들의 의지와 열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 뜨거운 마음과 새마을정신이 이 시대를 더 빛나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향한 희망과 새마을정신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 무르익어 가는 새마을운동이라는 열매

그림. 전선진

잘 익은 사과 하나, 고추 하나에  
농부의 정성과 오랜 시간이 깃들어 있는 만큼  
농가에 일손을 더하는 새마을가족의  
손길에도 공동체를 위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농촌일손 돕기’를 통해 도시와 농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새마을운동.  
오늘도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보태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





# 버려진 것들은 새롭게 모아진 마음은 따뜻하게

인천광역시부녀회

낡은 옷가지에는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수해의 현장에는 가장 먼저 달려간다.  
인천시부녀회를 움직이는 힘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어우러져  
빛어낸 뜨거운 ‘단합’이다.

글. 장희주 사진. 전경민



## 버려진 폐의류에 새 숨결을

인천시새마을회관에 들어서자 이른 아침부터 열정으로 가득 찬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작업장에는 인천시부녀회 회원들이 모  
여 분주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천 위로 가위질하는 ‘사각’ 소리, 재봉틀을 밟는 경쾌한 리듬, 그  
리고 강사를 향해 쏟아지는 끊임없는 질문까지. 부녀회원들의 손  
끝과 발끝은 쉼 없이 바쁘게 움직였고, 그 안에는 버려진 옷가지  
와 폐현수막에 새 숨결을 불어넣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  
란히 담겨 있었다.

이 현장은 지난 6월부터 이어져 온 ‘의류재활용 리폼 교육 사업’의  
공간이다. 버려질 뻔한 옷가지가 회원들의 손끝을 거쳐 새로운 옷  
과 가방, 생활소품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헌 청바지  
에서 잘라낸 알록달록한 조각천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그 옆  
에는 아기자기한 완성품들이 정성스럽게 줄지어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고 의류를 고치는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환경오염과 자원순환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오  
늘, 부녀회원들은 누구보다 앞장서 지역사회에 오래도록 남은 친  
환경 생활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옷깃에 새 숨결을 불어넣듯, 그  
과정은 삶에도 작은 변화를 더해간다.

실천의 출발점은 바로 ‘버려진 자원’이다. 가방이나 의류의 소재  
가 되는 폐의류는 주민들의 기증이나 부녀회가 주관하는 헌옷수  
거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다. 폐현수막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  
나 각종 행사가 끝난 뒤 회수한 것을 활용한다. 이렇게 모인 의  
류와 현수막은 세척과 재단을 거쳐 디자인과 패턴 작업을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낡은 옷감은 모자, 파우치, 에  
코백으로, 폐현수막은 장바구니 같은 실용적인 생활용품으로  
변신한다.

##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마음

의류재활용 리폼 교육 사업이 더욱 뜻깊은 것은 이 활동이 부녀  
회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함께 배우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버려질 줄 알았던 물  
건이 ‘쓰임 있는 제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주민과 회원들  
이 직접 경험한다. 그 시간을 통해 모두가 자연스럽게 자원순환



리폼을 위한 재단 작업

“  
새 숨결을 불어  
삶에 작은 변화를  
더한다  
”



←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2024년 재활용 리폼 작품 전시회

의 가치를 마음 깊이 느끼게 된 것이다.

황금덕 부녀회장은 처음엔 실 하나 제대로 끼우지 못했던 회원들이 이제는 능숙하게 가방, 앞치마, 지갑 등을 완성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없이 뿌듯하다고 전했다.

“지금은 다들 실도 꿰 줄 알고 밀실도 감을 줄 알아요. 웬만한 건 강사님이 알려주시면 척척 해내죠. 저는 손녀 앞치마를 직접 만들어줬는데, 손녀가 요리할 때마다 ‘이거 할머니가 만든 거야’ 하고 자랑하는 걸 볼 때가 정말 뿌듯해요.”

“  
서로를 믿고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일  
”



의류 재활용 리폼 교육장 모습

리폼 교육은 개인의 배움에서 그치지 않는다. 완성된 작품은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가며, 나눔의 가치를 이어간다.

“경로당이나 단체에 전달하기도 하고, 연수구 ‘한방마을’처럼 외국인이 모여 있는 곳에도 나눠드렸어요. 회원들이 만든 작품 중 속 바지는 잠잘 때 입는 편한 바지로 리폼해 만족도가 높았고, 손지갑 같은 작은 소품도 정말 좋아해 주셨죠.”

이러한 나눔은 전시회로도 확장됐다. 인천시부녀회는 완성된 작품들을 통해 자원순환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매년 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다. 단순히 결과물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료였던 폐의류와 폐현수막의 ‘변신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제작 과정과 참여자들의 소감을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해 방문객들이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함께이기에 가능한 일

인천시부녀회의 가장 큰 자량은 단연 ‘단합력’이다. 구·군과 동 단위까지 촘촘히 연결된 조직력 덕분에, 필요하다면 하루 만에도 수십 명이 모여 봉사 현장에 투입된다. 복지·환경·재난 등 다양한 현



폐의류를 활용해 만든 에코백, 가방, 앞치마



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지역의 ‘현장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여름, 충남 예산군에 큰 비가 내려 수해가 발생했을 때도 그 힘은 여실히 드러났다. 휴가철임에도 인천시부녀회 회원들은 새벽 4시 반에 모여 예산군으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신속히 복구 활동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는 부녀회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다.

“말하지 않아도 새마을가족들이 스스로 찾아와 줄 때 가장 큰 자부심을 느껴요. 가끔은 인원이 너무 많아 걱정될 때도 있지만, 그만큼 관심 가져주시는 게 감사하죠. 백령도에서는 배를 타고 전 날부터 나와 기다리시는 분도 계세요. 네 시간 넘게 걸리는 길인데도, 빠지지 않으려 일찍 나오시는 거죠. 그 열정 덕분에 언제나 힘이 납니다.”

단합력을 원동력 삼아 부녀회는 사랑의 김장·계절감치 나누기, 삼계탕 나누기, 밀반찬 나눔,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돌보는 공동체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하천 정화,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보급, 나무 심기 등 탄소중립 실천에도 앞장선다. 수해 복구, 폭염 대비 쿨스카프 배포, 폭설 제설

봉사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까지 해내며 지역 사회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올해로 의류 리폼 사업은 마무리되지만, 걸음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황금덕 부녀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계획을 이렇게 전했다.

“앞으로 인천시부녀회는 환경·복지·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업을 더 넓혀가려고 해요. 특히 내년에는 ‘주거약자 환경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청년 1인가구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분들의 집을 직접 개선해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물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생활환경을 개선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합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바로 서로를 믿고 마음을 모으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힘이다. 인천시부녀회는 그 힘을 바탕으로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함께하기에 가능한 일, 그리고 그 열정이 있기에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인천시부녀회의 발걸음은 더욱 힘차게 이어질 것이다. 🌱



# 손끝으로 빚고 진심으로 잇는 시간



서울 성북구부녀회

한가위를 앞둔 9월의 어느 날. 도심 속 전통문화 체험 공간 성북예향재는 환한 웃음소리로 가득찼다.

성북구부녀회가 결혼이민여성들과 함께 송편을 빚으며 국적과 문화를 넘어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손끝에서 빚어진 송편에는 정성과 웃음이 담겼고, 전통의 멋과 맛을 함께 즐기며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날의 풍경은 마치 새벽종이 울려 퍼지듯, 함께한 이들의 마음마다 따스한 울림을 전해주었다.

글. 장희주 사진. 전경민



자개 노리개 만들기 체험

## 함께 즐긴 전통문화 체험의 자리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날, 성북예향재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부녀회원들 하나둘 모여들었다. 오랜만의 만남에 반가운 인사와 웃음소리가 오가며 공간은 금세 따뜻한 활기로 채워졌다. 고즈넉한 한옥의 분위기 속에서 다가올 한가위를 기다리는 설렘도 한층 깊어졌다.

이날 행사는 부녀회원들과 결혼이민여성들이 함께 송편을 빚으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북구부녀회가 매년 정성을 기울여 준비해 온 대표 행사로, 전국 새마을 조직이 결혼이민여성과의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던 시기에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송편 만들기에 앞서 결혼이민여성들은 예향재에서 준비한 '이화 문양 자개 노리개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 박선희 강사가 자개 노리개의 의미와 한국 전통문화 속의 상징성을 설명하자, 결혼이민여성들은 처음 접하는 듯 반짝이는 눈빛으로 귀를 기울였다. 노리개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전통 의복 속에 담긴 소망과 아름다움의 상징임을 알게 되자, 표정에는 작은 놀라움과 흥미가 스며들었다.

이내 본격적인 노리개 만들기가 시작됐다. 서로 마주 앉은 이들은 가느다란 끈을 매만지고 반짝이는 자개조각을 하나하나 붙여 나가며 점차 몰입해 갔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정성 어린 마음이 담긴 작업이 이어졌고, 마침내 완성된 자개 노리개를 손에 들었을 때, 얼굴 가득 뿌듯한 미소가 번졌다.

## 성북구에서 함께 빚어낸 정(情)

자개 노리개 만들기를 마친 뒤, 본격적인 송편 빚기가 시작됐다.

이른 아침부터 반죽을 치대고 콩고물까지 정성껏 준비한 성북구 부녀회와 결혼이민여성들은 둥글둥글 송편을 빚으며 명절의 손맛과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최필금 부녀회장은 고향 가족과 떨어져 외로







함께 만든 자개 노리개를 들고 웃는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성북구부녀회원, 결혼이민여성들

운 명절을 보내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듯 온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고 전했다.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울 거예요. 저 역시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한가위 하늘만 봐도 부모님이 생각나 눈물이 날 때가 많았어요. 오늘은 성북구부녀회가 고향처럼 따뜻한 자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송편 빛는 자리에는 금세 웃음과 격려가 오갔다. 반죽을 오물오물 빚어내는 사이, “송편을 예쁘게 만들면 예쁜 아기를 낳는다”는 속설이 전해졌고, “아이고, 참 예쁘게도 빚었네”라는 칭찬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또 다른 이는 “안 예쁘게 빚어도 괜찮아요. 마음 가는 대로 빚어보세요”라며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었다. 따뜻한 말과 웃음 속에서 알록달록한 송편은 정성스럽게 완성돼 갔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구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모두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라며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했다.

능숙한 손길과 서툰 손길이 어우러져 빚어진 송편이 하나둘 완성됐다. 직접 찐 송편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행사는 마무리되었고, 그 맛은 단순한 명절 음식이 아닌 서로의 마음이 오간 소중한 흔

적이었다.

#### 헌신과 봉사 그리고 단합으로 만든 힘

성북구부녀회는 최필금 회장을 중심으로 20개 동 회장과 420여 명의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결혼이민여성들과 함께하는 한가위 행사를 비롯해 전통시장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 하천 및 환경 정화 활동, 구청 축제 먹거리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손길은 이웃의 식탁까지 닿는다. 홀몸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눔 활동이 그 대표적 사례다.

최 회장은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여름철에는 동별로 삼계탕 나눔 행사를 해요. 삼계탕만이 아니라 떡이랑 김치까지 함께 준비하다 보니 꼬박 사흘이 걸리기도 해요. 힘들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드시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때면, 그간의 수고가 모두 보람으로 바뀝니다. 성북구부녀회가 정말 자랑스럽죠”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성북구부녀회의 가장 큰 자랑으로 ‘단합력’을 꼽는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20개 동부녀회가 나서 땀 흘리며 힘든 일

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것도 성북구부녀회예요. 그래서인지 애국심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남다릅니다.” 서로의 마음을 모아 움직일 때 느껴지는 힘이야말로 성북구부녀회를 든든히 지탱하는 뿌리라는 것이다. 헌신과 봉사는 성북구부녀회의 저력인 동시에 최필금 회장의 삶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는 40여 년 동안 고려대학교 앞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며 지금도 100여 명의 학생을 돌보고 있다.

“〈생활의 달인〉에 ‘전설의 하숙집’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한 적도 있어요. 지금도 학생들을 위해 하루 세 끼를 챙기죠.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그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를 이어가고 싶어요. 앞으로도 학생뿐 아니라 더 많은 이웃을 위해, 새마을 활동을 통해 봉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의 바람은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북구에 ‘새마을 공유주방’을 마련해 홀몸 어르신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결혼이민 여성에게는 일상의 쉼터를 제공하고 싶다는 것이다. 또한 함께 담긴 김치와 반찬을 판매해 얻은 수익을 다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순환을 꿈꾼다. 성북구부녀회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언제나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따뜻한 나눔이 피어난다. 한 끼의 밥상, 작은 정성,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단합의 힘이 모두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 그리고 그 힘은 최필금 회장과 성북구부녀회의 뜨거운 열정 속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의 마음을 밝히는 빛으로 이어질 것이다. ☘



직접 빚는 송편

“  
모두의 마음이  
오고간  
소중한 흔적  
”



자개 노리개 만들기에 집중하는 모습





# 청년들의 땀과 웃음으로 캄보디아를 밝히다



2025 캄보디아  
새마을해외봉사단

이번 여름, 대한민국 청년들이 캄보디아에서 값진 땀을 흘렸다.

2025 캄보디아 새마을해외봉사단 '캄온'은 지난 7월, 현지에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전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직접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소중한 교감을 나누는 것이다. 이어 8월 13일에는 해단식을 열어 뜻깊었던 봉사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마을정신을 다시금 가슴에 새겼다.

글. 윤민지 사진. 김병구



놀이체험조의 바람개비 만들기 활동

## 7개 마을에서 뿌린 희망의 씨앗

'2025 캄보디아 새마을해외봉사단 캄온'은 대학새마을동아리와 청년새마을연대 소속 29명으로 꾸러졌다. 봉사단은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14박 15일 동안 캄퐁스페우주 룬돌면의 프레이로미트, 춘령음루, 룬돌 뜨메이, 오목 독 마을 등 4개 시범마을과 3개 자생 마을, 룬돌 초·중·고등학교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환경 개선이었다. 단원들은 매일 노력봉사와 교육봉사를 병행하며 마을 곳곳을 돌보았다. 4개의 시범마을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울퉁불퉁하던 도로를 다듬었다. 조경수 심기, 배수로와 도로 정비, 지붕 개량, 마을길 보수, 마을회관 타일 설치 등 필요한 작업을 빠짐없이 해냈다. 허리가 휘청

거릴 만큼 체력적으로 고된 순간도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환한 웃음과 따뜻한 격려가 단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마을 주민센터와 학교 벽면에는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졌다. 단원들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아이들은 그림을 보며 함께 웃었고, 완성된 벽화는 마을의 자부심으로 남았다. 봉사 기간 중 완공된 학교 식당 역시 새 단장을 했다. 기둥과 바닥, 테이블과 의자에 색을 입히고, 사계절을 주제로 벽화를 채워 넣어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꾸몄다. 식당은 금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 교육봉사 시간에는 놀이 체험, 보건, 체육, 예술 등 네 개 조로 나눠 아이들을 만났다. 놀이 체험 조는 비석치기, 제기차기 같은 한국 전통놀이와 종이컵 바람개비, 한지 한복 접기, 봉숭아 물들이기 등 친숙한 놀이를 함께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보건 조는 손 씻기와 같은 위생 교육을 통해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이끌었다. 체육 조는 태권도와 미니 운동회를 열어 건강과 협동심을 키웠고, 예술 조는 에코백 꾸미기와 비즈 액세서리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을 꽃피웠다. 아이들은 한국과 캄보디아 국기를 나란히 그리고 두 나라를 잇는 마음을 하트로 표현하기도 했다. 단원들의 이름을 크메르어와 한국어로 적어주며 우정을 나누는 아이들도 있었다. 무더운 날씨와 갑작스러운 폭우, 잦은 정전, 언어 장벽은 단원들에



태권도를 가르치는 체육조



예술조의 부채 꾸미기 활동





캄보디아 봉사에 함께한 새마을운동중앙회노동조합

게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그러나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 된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 한 단원은 “우리가 남긴 변화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돌아왔다”라며 보람찬 마음을 전했다. 캄보디아 마을 곳곳에 땀과 열정을 심은 봉사단의 발걸음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선 희망의 씨앗이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았다.



손씻기 위생교육을 진행하는 보건조 조원들



조경수 심기 및 마을 도로 정비

### 14박 15일간 흘린 땀, 함께 웃으며 마무리하다

캄보디아 봉사활동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지난 8월 13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2025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해단식’이 열렸다. 보름 만에 다시 만난 봉사단원들은 활동 사진을 함께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다시금 진한 동료애를 나누었다. 활동 보고에 나선 김은영 단장(조직사업국 청년지원팀장)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선한 영향력이 캄보디아에 닿았을 것”이라며 “우리가 남긴 것보다 더 많이 배웠던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진 소감 발표에서 류우형 새마을봉사단 남성 대표는 “힘겨울 때마다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동료들과 함께한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단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하운 여성 대표 역시 “함께 흘린 땀과 웃음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다”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이날 봉사단원 전원에게 봉사활동 증명서가 수여되었고, 매일 밤 조장회의를 이끌며 헌신했던 조장들은 우수 봉사단원으로 선정되었다. 김성호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은 “여러분의 봉사활동

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국가가 성장하는 밑거름”이라며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에 깊은 격려를 보냈다. 해단식의 마지막은 봉사단 전원이 함께 모자를 던지는 퍼포먼스로 장식되었다. 환한 웃음속에 “캄온 파이팅”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현장은 다시 한번 벅찬 감동으로 물들었다. 이후 단원들은 서로를 응원하는 롤링페이퍼를 작성하며 마지막까지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울여름 캄보디아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은 봉사단원들의 가슴 속에 값진 자산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



해단식에 참석한 새마을해외봉사단

### 🎙 새마을해외봉사단 대표 인터뷰

#### Q.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과 고마웠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장하운** • 아이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교육봉사’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고, 서툰 한국말로 ‘사랑해!’라고 외쳐주던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한 단원 모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실 대표라는 자리가 부담됐는데, 서로 배려하며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쳐준 단원들 덕분에 끝까지 힘낼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새마을해외봉사단 여성 대표  
청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3학년

#### Q. 이번 해외봉사가 캄보디아에 남긴 변화는 무엇인가요?

**류우형** • 봉사에 참여했던 마을 주민들과 학교의 아이들 모두 한국을 방문해 새마을운동을 더 깊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헤어지던 순간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국에 꼭 찾아갈 테니 다시 만나자’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이번 봉사가 단순히 한국의 경제 발전 성공 사례를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새마을운동이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캄보디아 새마을해외봉사단 남성 대표  
태권도장 운영

#### Q. 청년새마을연대 회원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계획인가요?

**류우형** • 캄보디아 해외봉사를 통해 제 마음속 불꽃이 다시 살아났어요. 앞으로는 새마을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에 적극 참여해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싶습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협력하고 배우며 성장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내고, 모두와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새마을정신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 4년 차 국가 키르기스스탄



해발 약 1,600m 높이에 자리한 키르기스스탄의 아름다운 호수,

이식쿨호 인근의 ‘아를리나에’ 마을은 2022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을 시작했다.

그 후 상수도 설치, 도로 포장, 새마을회관 건립, 마을 목욕탕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눈에 띄는 변화를 이뤄냈다.

이러한 변화의 밑바탕에는 주민들의 굳건한 단결력과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글. 이원복 사진. 전경민



아를리나에 마을 주민

[에세날리에프 알틴벡]

## Q 키르기스스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아를리나에 마을도 소개해 주세요.

저는 아를리나에 마을 새마을회 회원이자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양을 기르고 사료를 직접 생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 뿐 아니라 마을 주민 대부분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지요. 초봄부터 늦가을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주민 모두가 새마을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Q 어떤 계기로 새마을운동을 접하고, 시작하게 됐나요?

저는 늘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방법을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새마을운동의 개념과 정신을 정확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후 우리 마을을 포함한 4개 마을이 새마을운동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첫해에는 상수도를 설치했고, 이어 도로 포장과 새마을회관을 건립했으며, 현재는 마을 목욕탕을 짓고 있습니다.

## Q 처음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때 어려움은 없었나요?

우리 마을에는 10개 민족이 함께 살고 있지만 단결력은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이는 키르기스스탄의 전통 문화인 ‘아샤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샤르는 마을 공동체가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

는 협동 문화로, 새마을운동과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새마을운동이 ‘마을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데 공감했고, 특히 상수도 설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우리 힘으로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 Q 새마을운동을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새마을회관이 없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밖에서 모여야 했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편하게 모여 회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도 크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내적인 변화에 더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죠.

## Q 생업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한국 초청연수에 참여한 이유와 소감이 궁금합니다.

저는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한 나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10일간의 교육과 활동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데 큰 영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기회를 마

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Q 앞으로의 새마을운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동안은 마을 환경개선 사업에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를리나에 마을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관광지인 이식쿨호 인근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펜션이나 식당 운영을 통해 소득을 늘려가고자 합니다. 또한 몇 년간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면서 새마을금고의 필요성도 크게 느꼈습니다. 금고를 설립해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소득증대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 Q 함께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함께 노력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손으로 마을을 바꾸자’는 메시지를 꾸준히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새마을운동에 참여해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태 준다면 아를리나에 마을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도약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키르기스스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주요 추진 사업



### 아를리나에 마을

- 식수 사업
  - 신규 탱크 연결 예정
- 마을안길 정비
  - 1.74km 확장 및 포장
- 마을회관 리모델링
  - 전기작업, 화장실, 샤워실 설치 등



### 악자르 마을

- 가축 사육
  - 블랙앵거스, 소 등 19마리 사육 중
  - 가축 사료 제작소 건립
- 폐기물 재활용 사업
  - 마을 기금으로 작업장 건립



### 탐가 마을

- 새마을 공원 조성
  - 공원 내 마을회관 건립 중, 문화의 집 리모델링 중
- 소득증대 사업 실시
  - 가축 구매 예정



### 오록 마을

- 마을회관과 목욕탕 건립
  - 마을회관 임대 사업으로 소득 증대
  - 목욕탕은 인근 6개 마을 공동 이용 가능
- 체육시설 조성
  - 트랙 설치 및 포장, 스포츠 단지 조성 예정



# 황금빛 들녘에 피어나는 칭찬 온정과 칭찬으로 물드는 공동체

## 협의회

품격 있는 지역사회 성장과 새마을운동 가치를 실천하는  
**백상원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장**님을 칭찬합니다.

백상원 회장님은 지역사회의 성장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지구촌새마을운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따뜻한 새마을운동을, 나아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는 글로벌한 새마을운동을 몸소 실천하시는 회장님의 모습은 모두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새마을지도자의 모습입니다.

From\_ **윤영학** 인천광역시협의회장



오늘의 대한민국은 새마을정신으로 다시금 하나 되어야 할 때입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더욱 힘차게, 더욱 감동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_백상원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장

## 부녀회

멋진 리더십과 열정, 헌신을 보여주는  
**도영순 경상북도부녀회장**님을 칭찬합니다.

도영순 회장님께서 새마을여성 봉사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필리핀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힐링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으로 나눔과 연대의 소중한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멋진 리더십에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늘 한결같은 열정과 헌신의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From\_ **최경옥** 전라남도부녀회장



뜻깊은 칭찬릴레이에 함께하게 돼 영광입니다. 제가 한 일들을 좋게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_도영순 경상북도부녀회장

## 문고

늘 정성을 다해 새마을문고 발전에 헌신하는  
**김동노 문고 광주광역시지부회장**님을 칭찬합니다.

김동노 회장님께서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 두 도시가 '달빛동맹'으로 맺은 인연을 통해 문화 교류와 공감의 장을 열어 가며, 지역과 지역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돼 주고 계십니다. 특히 가을음악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새마을문고의 가치를 널리 알렸습니다. 이웃집 아저씨처럼 친근하면서도, 진심과 책임감으로 묵묵히 일하시는 김동노 회장님, '존경합니다에이~'

From\_ **이승로** 문고 대구광역시지부회장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 두 지역을 잇는 튼튼한 다리로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과 문화를 통해 소통하고 새마을문고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가 이어져 두 도시가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_김동노 문고 광주광역시지부회장

## 청년새마을

긍정 에너지의 원천이자 배려가 넘치는  
**정윤조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정윤조 회장은 언제나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준다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보입니다. 특히 회장님께서 '덕분에요'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에도 웃음이 가득하고 매력이 넘치는 정윤조 회장을 응원합니다.

From\_ **우경호**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장



'덕분에요'라는 말처럼 서로를 북돋우며 배려와 긍정으로 더 크게 나가겠습니다. 모두 덕분입니다. 저도 모든 새마을가족분들을 응원하고 새마을정신을 실천하며 지역과 이웃을 더욱 환하게 밝혀 가겠습니다.

\_정윤조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장

## 직장·공장협의회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이옥순 충청남도금산군직장·공장협의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지난해 10월, 충청남도금산군직장·공장협의회가 창단되고 손두부 나눔 행사, 취약계층 및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위안 행사, 삼계탕 축제 등 다양한 지역 나눔 활동에 앞장서며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 오신 이옥순 회장님. 앞으로도 금산군의 든든한 희망이 되어주실 이옥순 회장님께 진심 어린 칭찬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From\_ **이천용** 충청남도청양군직장·공장협의회장



금산군직장·공장협의회 창단 이후 열심히 달려온 노력을 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분의 격려와 응원을 에너지로 삼아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금산군직장·공장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_이옥순 충청남도금산군직장·공장협의회장

## 대학새마을

솔선수범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김보민 경기도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장**님을 칭찬합니다.

김보민 회장은 언제나 밝은 얼굴과 넘치는 에너지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분입니다. 어떤 일이든 앞장서 솔선수범하며, 정의로운 태도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언젠가는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경찰이 되는 꿈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From\_ **신유빈**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장



말씀처럼 서로를 북돋우며 주변에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대학새마을동아리들이 서로에게 버팀목이 돼 주고 더 힘을 얻어서 우리 사회에 좋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두 파이팅!

\_김보민 경기도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장



새마을가족의 칭찬 릴레이는  
**다음호 <새벽>으로** 이어집니다.





## 가을빛이 내려앉은 도시 정읍에서 만나는 단풍과 서정의 길

한 겹, 또 한 겹. 계절이 색을 더해 갈수록 정읍은 깊어진다. 내장산국립공원의 단풍 능선과 물 위에 떠 있는 우화정, 하얀 꽃물결로 물드는 구절초 지방정원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성서원까지. 사색과 산책이 동시에 어울리는 길 위에서, 우리는 가을의 결을 천천히 어루만진다.

글. 편집실

### 가을 정취 가득한 ‘우화정’과 ‘내장사’

내장산으로 오르는 길목을 걷다 보면 연못 한가운데 떠 있는 ‘우화정’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잔잔한 수면 위로 정자와 단풍이 겹쳐 비치는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를 닮았다. 우화정(羽化亭)이라는 이름은 ‘정자에 날개가 돌아 하늘로 승천했다’는 전설에서 지어졌다.

우화정은 접근성 좋은 산책로와 포토존이 잘 정돈되어 있어 초보 여행자도 부담 없이 찾기 좋다. 연못 가장자리 데크에서 정자와 단풍의 반영을 함께 담기 좋다. 이곳에서 잠깐 숨을 고른 뒤 다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일주문부터 108그루의 단풍나무가 만들어 낸 터널이 이어진다.

단풍으로 가득한 터널 끝에 다다르면 내장사가 모습을 드러낸다.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636)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러 차례의 전란과 화재를 거치면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켰고, 이제는 그러한 시간을 품은 채 여행자를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사찰의 매력은 자연과 건축이 서로를 과장하지 않는 데 있다. 오래된 기둥과 낮은 처마, 마당의 바람까지 모두 과장 없이 단정하다.

### 아름답게 펼쳐지는 단풍의 파노라마 ‘내장산’

내장산국립공원은 정읍 가을 여행의 핵심 무대다. 산자락을 따라 단풍 군락이 이어지고, 능선에서는 정읍 시내와 주변까지 한 눈에 들어온다. 초가을에는 녹색과 황색의 대비가 뚜렷하고, 절정기에 들어서면 붉은색 스펙트럼이 깊어진다.

내장산은 직접 오르는 것도 좋지만 케이블카를 통해서도 즐길 수 있다. 발아래 병풍처럼 늘어진 능선과 단풍 물결이 한눈에

펼쳐져 왜 내장산이 ‘단풍 1번지’임을 실감하게 된다. 내장산 탐방안내소에서 출발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상부 정류장에서 내려 약 300m만 더 걸으면 연자봉 전망대까지도 금방이다. 노을 질 무렵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가을 단풍과 붉게 물든 하늘이 어우러져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른다. 케이블카는 계절과 기상 상황에 따라 운행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니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트레킹을 겸한다면 왕복 1~1.5시간 내외로 가볍게 다녀올 만한 코스도 있다. 케이블카 탑승 전 안내센터에서 내장산 전체 모습을 미리 살펴보면 산세가 머릿속에 그려져 걷는 재미가 배가된다.

### 하얀 가을이 있는 ‘구절초 지방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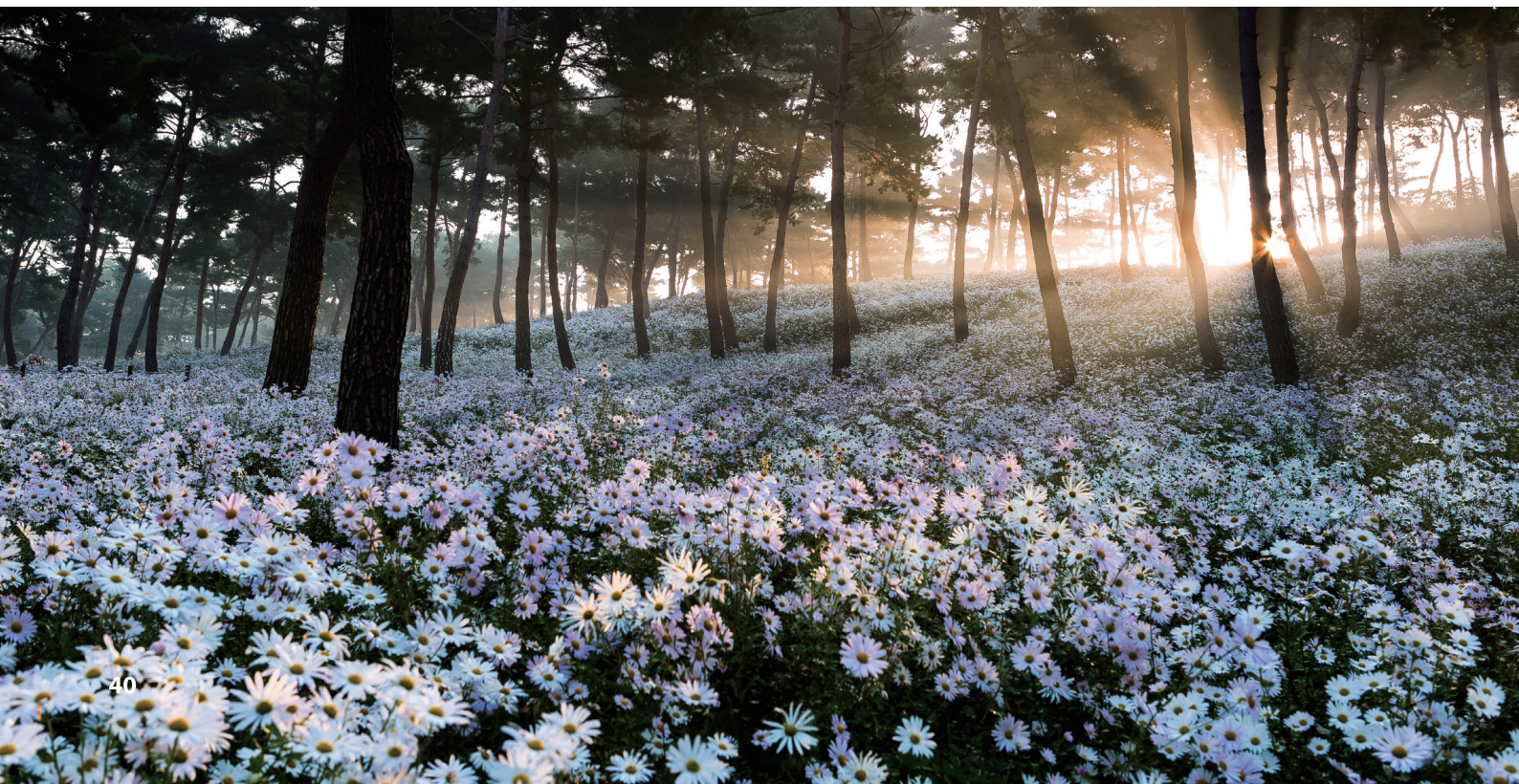
정읍의 가을은 붉은색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바로 추령천 옆 너





른 숲과 언덕을 하얗게 덮은 구절초 때문이다. 가을이 되면 소나무 숲 아래로 펼쳐진 구절초 군락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낸다.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은 전라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도심에서 조금 벗어나 숲과 하천을 따라 자리한 지방정원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콤해진다. 짙은 숲 냄새에 구절초꽃의 향기가 얹혀 섞여 코끝을 스친다. 구절초꽃은 가까이서 보면 꽃잎이 바늘 끝처럼 가늘지만, 그 군락은 멀리서 보면 새하얀 파도처럼 산자락을 타듯 이어지는 모습이다. 군락 사이

로 난 오솔길을 천천히 걸으면 발목부터 어깨까지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진다. 정원은 들꽃정원, 물결정원, 참여정원, 출렁다리로 이어지는 1시간 남짓 산책 코스를 천천히 걸으며 사색에 빠지기도 좋다. 최근에는 부치봉 정상에서 출발해 구절초 정원과 추령천을 내려다보며 550m 구간을 활강하는 '구절초 집와이어'가 개장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스릴을 동시에 느끼는 색다른 즐거움도 선사하고 있다.



### 정읍 서쪽 들녘의 서원 산책 '무성서원'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둘러싼 무성서원은 1615년에 세워진 서원이다. 신라의 사상이 최치원과 조선 시대 선비 신잠을 함께 모시고 있는 곳으로 조선 성리학의 교육 전통과 공간 구조를 잘 간직해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담장과 강당, 사당이 간결하게 조성된 마당을 걷다 보면, 배움과 예(禮)를 일상에서 실천하던 옛사람들의 시간을 고요히 느낄 수 있다. 무성서원은 깊은 산중이 아니라 정읍의 서쪽 들녘에 있다. 그 래서일까. 서원으로 들어서는 길에 발 냄새와 흙냄새가 먼저 난다. 담장을 따라 걷다 보면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원을 지키듯 서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들이 작은 종처럼 흔들린다. 은행잎을 사각사각 밟으며 마당 한 바퀴만 돌아도 무언가가 마음을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서원의 모습은 화려함보다 단정함에 가깝다. 가을이면 마당이 노란 물결로 덮이고, 그 위로 낮은 처마와 단정한 기둥이 선을 잇는다. 화려함보다는 절제, 과시보다는 균형의 미학이 엿보인다. 🍂

### 정읍의 가을을 100% 즐기는 법

#### 📍 내장산 단풍 전망 코스

- 코스 : 내장산 탐방안내소 → 케이블카(상부) → 연자봉 전망대
- 특징 : 가볍게 걸으면서 보는 단풍 파노라마
- 거리(km) : 약 2.5~3km / 소요 시간 : 1시간 30분 내외
- 난이도 : ★★

#### 📍 물·숲·정자 산책 코스

- 코스 : 우화정 → 일주문 → 단풍터널 → 내장사
- 특징 : 호수와 가을의 정취가 있는 길
- 거리(km) : 약 2km / 소요 시간 : 1시간 내외
- 난이도 : ★

#### 📍 하얀 꽃물결 힐링 코스

- 코스 : 주차장 → 구절초 군락 순환 → 출렁다리
- 특징 : 드넓은 꽃밭과 숲길이 이어지는 코스
- 거리(km) : 약 2.5km / 소요 시간 : 1시간
- 난이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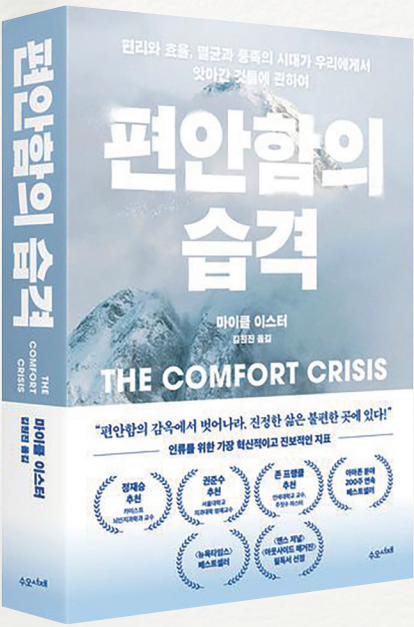


# 책 속에서 배우는 새마을정신의 가치

## 가을에 읽기 좋은 추천 도서

책장을 넘기며 사색하기 좋은 이 계절, 책을 읽고 싶지만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새마을가족들에게 마이클 이스터의 《편안함의 습격》을 추천한다. 편안함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역설을 통해 불편함을 마주하는 용기와 인내의 가치를 일깨우며, 굳이 귀찮고 불편하고 힘든 길을 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글. 새마을문고중앙회



### 편안함의 습격

저자 마이클 이스터 번역 김원진 출판 수오서재

### ‘편안함의 역설’을 말하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 온 편안함이 오히려 인간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이클 이스터의 저서 《편안함의 습격》은 이 문제의식을 정면으로 다루며, 편안함의 과잉이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책은 저자의 개인적 체험과 다양한 학문적 통찰을 결합해, 독자에게 불편함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묻는다. 저자는 오늘날의 편리한 생활환경을 ‘습격’이라는 다소 공격적인 단어로 규정한다. 편안함은 더 이상 삶을 운택하게 하는 선물이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활력을 앗아가는 함정이 됐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를 ‘과잉된 편안함의 부작용’으로 분석하며, 진정한 성장은 불편함을 경험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책의 중심에는 저자가 알래스카 오지에서 보낸 33일간의 체험이 자리하고 있는데 극한의 추위와 배고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현대인이 일상에서 철저히 회피하는 불편함의 총체였다. 그러나 저자는 고통과 불편 속에서 인간 본연의 강인함과 생존 본

능을 발견한다. 그는 이를 ‘인내의 우물’이라 부르며, 그 우물이 회복력과 자존감을 끌어올린다고 설명한다.

### 대나무에게 배우는 인내의 힘

《편안함의 습격》이 단순한 자기계발서에 머물지 않는 이유는, 과학적·철학적 근거가 풍부하게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학제적 시각은 저자의 체험을 객관적으로 지지하며, 독자로서 하여금 ‘불편함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한다. 또 이 책은 불편함을 선택하는 구체적 방법도 제시하는데 디지털 기기 없이 지루함을 온전히 느끼고, 공복을 받아들이며, 죽음을 성찰하고,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노동을 일부러 경험하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고행의 권유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실질적 훈련이다. 저자는 독자가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길 권하며, 독서와 운동 또한 마찬가지라고 강조한다. 꾸준히 책을 읽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반복과 성실 속에서 성장과 회복의 과정이 서서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나무의 한 종류인 ‘모죽’에서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대나무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모죽은 씨를 뿌리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가꿔도 몇 년 동안은 싹이 트지 않는다. 그렇게 5년이 지나서야 손가락만 한 죽순을 틔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다음이다. 죽순을 틔운 모죽은 이때부터 하루에 1미터씩 자라, 30미터까지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잘 자라는 모죽은 왜 5년 동안 싹도 트지 않고 땅속에 있었을까. 이를 궁금해한 식물학자들이 땅을 파보니 5년 차 모죽의 뿌리가 사방으로 그물처럼 뻗어 전체 길이가 약 4킬로미터가 넘도록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

### 편안함을 넘어서는 새마을운동의 길

《편안함의 습격》은 우리 시대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편안함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저자의 답은 명확하다. 진정한 행복과 성장, 그리고 인간다운 활력은 오직 불편함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의 마지막 문장은 강렬하다. “아주 힘들어야 한다. 그러나 죽지 않아야 한다.” 이 역설적 명제는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동력으로 삼으라는 선언이다. 독자에게 편안함의 늪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할 용기를 촉구한다. 그 불편함이 고통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축복이기 때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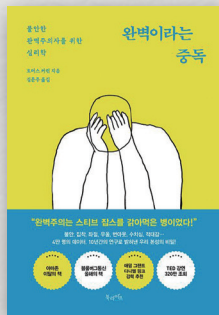
새마을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한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책을 읽고 봉사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겠노라고....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추천

### 【인문교양】



### 완벽이라는 중독

저자 토머스 커런 번역 김문주 출판 북라이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 치진 이들에게. 이 책은 완벽주의가 일·관계를 어떻게 소모시키는지를 짚고, 비교와 집착의 고리를 끊는 실천을 제안한다. 심리학자의 통찰로 ‘있는 그대로’의 용기를 배워서 나를 회복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 【자기계발】



### SI 시대 창의적 인간

저자 이시한 출판 RHK(알에이치코리아)

시가 그림과 음악까지 만들어 내는 시대, 이제 창의성은 더 이상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책은 사람과 시가 협력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쉽고 친근하게 풀어낸다. 시와 경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방법이 담겨 있다.

### 【소설】



### 오렌지와 빵칼

저자 청예 출판 허블

한국과학문학상 장편대상을 수상한 작가 청예가 신작 《오렌지와 빵칼》로 돌아왔다. 웃음을 잃은 주인공 오영아와 ‘정서 조절 시술’이라는 독특한 설정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개인의 감정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활동과 반가운 소식,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Vol.22

## 중앙회

### 키르기스스탄 초청 새마을교육

중앙회는 지난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21명의 공무원과 시범마을 지도자들을 초청해 새마을교육을 실시했다. 키르기스스탄은 2022년부터 4개 시범마을에서 새마을운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범사업 모범사례를 공유해 새마을운동의 현지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교육 기간 동안 연수생들은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과 추진 전략 강의, 성공사례 공유, 액션플랜 수립,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및 현지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 2025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총회

중앙회는 지난 9월 15일 본관 제4강의실에서 '2025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총회'를 개최했다. 46개 회원국 중 33개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 보고, 2026년 주요사업 계획 보고, 신규 가입국 논의, 이사국 선출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적도기니·라이베리아·나이지리아·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의 신규 가입을 승인하며 SGL 회원국 수는 기존 46개국에서 51개국으로 확대됐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새마을 해외아동 결연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도 이어졌다. 후원금은 미얀마, 피지, 동티모르, 타지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부룬디, 탄자니아 등 7개의 SGL 회원국 새마을협력관을 통해 결연 아동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2025 새마을글로벌협력국장관회의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중앙회는 지난 9월 17일 라한 셀렉트 경주에서 '함께 새마을, 세계로·미래로'를 주제로 한 2025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와 글로벌협력국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외교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후원했다. 지구촌새마을지도자 대회는 2014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올해 12회를 맞이했다. 지구촌 공동번영과 새마을운동의 세계적인 확산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는 지구촌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온 해외 새마을지도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국가별 지역개발 정책을 논의했다.



### MZ새마을축제

중앙회는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중앙연수원에서 'MZ새마을 FIESTAR: 미래로! 세계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새마을회원들의 조직력 강화와 연대·화합을 목적으로 열렸으며, 전국 청년새마을연대 및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개회식에서는 청년 회원들을 격려하는 시상식이 진행됐고, 김광림 회장이 직접 참석해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미니운동회,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사진전시회, 음악 공연, 새마을야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가자들이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서울 유기견 봉사활동

서울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장유리나)는 지난 8월 31일 파주시에 위치한 유기견센터에서 유기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유기견산책은 아쉽게 취소되었으나, 봉사자들은 실내청소, 급식공간정리, 소독작업 등 보호소 환경 정비에 힘을 모았다. 특히, 200만 원 상당의 알려지처방식 사료를 보호소에 기부했으며, 헌 수건과 담요 등 필수물품도 함께 전달했다. 장유리나 회장은 "작은 도움이지만 유기견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며, 봉사활동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 부산 경남 거창군 버섯 농가 일손 돕기

부산시새마을회(회장 백옥자)는 지난 8월 26일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농촌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부산시새마을회 임원단과 부녀회,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등 140여 명이 참여해 버섯 농가의 폐배지를 정리하고 고추 수확을 도왔다.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회장 한다은)도 같은 날 신원면 일대에서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인지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돌봄 봉사도 병행하며 어르신들의 말벗 되어 드리기 활동을 했다.



### 대구 농촌현장 일손 나눔

직장·공장 대구시협의회(회장 권기준)와 대구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는 지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군위군에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기념해 대학생에게 군위군을 소개하고, 청년세대가 지역과 직접 교류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대추나무 비료 주기, 계절감치 담그기 및 홀몸 어르신 전달, 폐농약병 분리·배출, 군위군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인천 핵심지도자 워크숍·수해복구 지원활동

인천시새마을회(회장 이항일)는 지난 7월 3일부터 4일까지 중앙연수원에서 '핵심지도자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광림 중앙회장이 퇴계 이항의 경(敬) 사상을 토대로 한 새마을정신과 철학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인천 서구 '가재울마을공동체' 수범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지난 7월 30일에는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천 제방 일대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인천시새마을지도자 40여 명이 환경정비와 농가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 광주 농번기 농가 돕기 활동

광주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회장 조성인)는 지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마을에서 농촌봉사 활동과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광주시새마을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광주 소재 대학생 3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대학·지역·도시 간 공동체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농촌을 지원하고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봉사단은 이를 동안 고절리 마을에 머물며 폐닐 수거, 한방 진료, 벽화 그리기, 찾아가는 마을극장, 반찬 나눔, 어르신 가사일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 대전 새마을이동발래방 차량 개장식

대전시새마을회(회장 박영복)가 주최한 '새마을이동발래방' 개장식이 지난 9월 3일 동구 용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복지 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전시새마을회의 이동발래방 차량은 1톤 LPI 수퍼캡 초장축 가스차량으로, 드럼세탁기 2대, 건조기 1대, 발전기, 전기온수기, 물탱크 등 세탁에 필요한 설비를 갖췄다. 차량은 연중 주 5일 동안 대전시 82개 동을 순회하며 홀몸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세탁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도 소식 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



**울산** 청년새마을연합회 워크숍

울산시새마을회(회장 정대식)는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경주 성호리조트에서 '2025 청년새마을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울산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이심경)가 주최하고 울산시새마을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청년연합회장단과 지역 구·군 청년연대, 대학 동아리 회원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청년새마을과 함께하는 꿈의 도시 울산'을 주제로 열렸으며, 청년조직의 역할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특강, 사례 발표, 자유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세종** 독립기념관·유관순 열사 기념관 탐방

세종청년새마을연대 동행(회장 김종현)과 대학새마을동아리 다가치(회장 김홍석)는 지난 8월 30일 회원 60여 명과 함께 천안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완전한 광복'을 이루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종현 회장은 "독립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 통합과 통일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MZ세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 MZ민주로드 농촌일손 돕기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이호경)는 지난 8월 29일 'MZ세대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현장체험 활동'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청년새마을연합회와 경기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60여 명이 참여해 평택 현충탑과 서해수호관을 방문하며 나라 사랑과 안보의식을 되새겼다. 이어 8월 30일에는 이천시 백사면 배추밭과 현방2마을회관, 백우리마을회관에서 'MZ 경기도청년새마을 농촌봉사활동-함께 어울림 생활농촌활동'을 진행해 배추밭 일손 돕기, 마을회관 환경정비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강원** 'MZ세대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현장체험

강원도새마을회(회장 홍순선)는 지난 8월 23일 강원지역 청년연대 회원과 대학동아리 회원, 시·군 직원 등 MZ세대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현장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고성군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을 견학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분단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활동이 있고 지냈던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북** 충북MZ 농촌봉사활동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남재호)는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보은군에서 대학새마을동아리 농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MZ세대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을 주제로 진행된 활동은 8개 대학 새마을동아리 회원 60명이 참여했으며, (주)대화건설(회장 이화련)이 후원했다. 참석자들은 농가에 부족한 일손을 보탬고, 구인리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 20여 분을 모시고 염색과 세죽 봉사를 펼쳤다.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남재호 회장은 "앞으로도 세대와 지역이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 라오스 국립대학생 초청 연수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성낙구)는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 우수 학생 20명을 초청해 '충남을 배우다! 새마을운동을 배우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은 충청남도과 자매결연을 맺은 라오스와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 학생들은 충청남도과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선진 농업 현장, 역사문화 유적지, 산업시설 등을 방문하며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체험했다.



시·도 소식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이북5도



**전북** 베트남 해외협력사업-민주주의 체험

전라북도새마을회(회장 이상수)가 주관한 '제4회 전북형 새마을 해외협력사업'이 지난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다락성에서 진행됐다. 특히 부온마트웃 약약대학 학생봉사단과의 교류 활동도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전북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조영훈)는 지난 8월 23일 정읍에서 '2025 자유민주주의 현장체험 프로젝트 - MZ답게, 민주주의는 Z! 금부터!' 행사를 개최했다. 이어 전라북도새마을회와 전북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회장 박민준)는 지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완주군 경천면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전남** 도서기증·한마음수련대회

문고 전라남도지부(회장 백영자)는 지난 8월 19일 한국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도서 100여 권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정서적 안정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직장·공장 전라남도협의회(회장 오인규)도 지난 7월 12일 장흥실내체육관에서 '2025 전남 직장협의회 한마음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군 직장회원 100여 명이 참여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경북** 가족과 함께한 '민주로드 in 경북'

경상북도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전인수)는 지난 8월 23일 대전 3·1의거 기념관에서 '민주로드 in 경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청년새마을연대 회원과 가족, 경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학생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독립운동 재현 체험, 태극기 부채 만들기, 족욕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동체 정신을 실천했다. 특히 MZ세대 참가자들은 역사 현장을 경험하며 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의식을 강화했다.



**경남** 새마을의 날 기념식·바다정화활동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윤원섭)는 지난 9월 8일 거제시 사등면 청포항 일원에서 '새마을운동 55주년,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바다정화활동'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해 윤준영·정수만 경남도의원, 변광웅 거제시장, 고영식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지구 총재, 시·군지회 회장단, 새마을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으며, 청포항 해안변과 인근 사리섬 일대에서 바다정화활동이 펼쳐졌다.



**제주** 머쳐왓숲길서 탄소중립 실천 플로깅 활동

제주도새마을회(회장 김창기)는 지난 7월 29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 위치한 머쳐왓숲길 일대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플로깅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회 회장단과 이사 등 20여 명이 참여해 지역 생태환경 보전과 깨끗한 숲길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참가자들은 숲길을 따라 걸으며 곳곳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와 플라스틱, 담배꽂초 등을 수거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면서 탄소배출 저감과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북5** 평안남도 부부지도자 돕기 모금 전달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지난 8월 5일 서울 이북5도청에서 박춘길 평안남도협의회 새마을지도자를 돕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은 박춘길 지도자의 여동생 박춘희 평안남도 부부지도자에게 전달됐다. 박춘길 지도자와 부인 이기순 평안남도새마을부녀회장은 부부 새마을지도자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박춘길 지도자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현재 1억 원이 넘는 수술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조성원 회장은 도회장단과 총 6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해 전달했다.





### 서울 서대문구새마을회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행사

#### 무엇을?

관내 어르신·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

#### 어떻게?

- 무더위에 지친 관내 어르신을 위해 새마을지도자와 대학새마을동아리가 함께 정성껏 마련한 식사를 대접하고 밴드공연 등 초청행사 개최

#### Point!

- 무더위 극복과 건강 증진: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여름철 건강 챙기기
- 나눔과 공동체 정신: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
- 화합과 소통: 새마을지도자·대학동아리·밴드공연이 만든 공동체 행사

#삼계탕 나누기 행사 #사랑의 삼계탕 #나눔문화 확산

### 부산 남구새마을회



한 가족 독서골든벨

#### 무엇을?

하나, 환경과 역사 관련 추천 도서를 읽고 퀴즈 풀기  
둘,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하는 온 가족 독서골든벨

#### 어떻게?

- 어린이와 보호자가 2인 1조로 경합에 참여
- 함께 퀴즈를 풀고, 버블쇼, 페이스페인팅, 축하 공연 등을 즐김

#### Point!

-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독서문화 확산 #창의력과 사고력 증진 #한마음 한가족

### 서울 송파구새마을회



여름 속 작은 침포, 성내천 피서지문고

#### 무엇을?

하나, 여름철 구민에게 쾌적하고 즐거운 독서 공간을 제공하고 휴식과 문화 체험의 기회 마련  
둘,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과 평생학습 환경 조성 기여

#### 어떻게?

- 도서 2,000권 및 물놀이 용품 대여
- 패션 타투, 한줄 서평 쓰기, 비즈팔찌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Point!

- 가족 단위 방문객과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독서공간을 제공
- 구민의 독서문화운동 실천에 앞장

#세대 간 화합 #피서지문고 #독서문화운동

### 대구 남구새마을회



합천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활동

#### 무엇을?

하나, 집중호우 피해가 일어난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수해복구 활동  
둘, 집중호우 피해 가구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도록 도움

#### 어떻게?

- 수해 피해가구 토사 제거, 비닐하우스 정리 등 수해 복구 활동 실시

#### Point!

- 무더운 날씨에도 대구 남구새마을지도자와 영남공대학교새마을동아리, 글로벌청년연대, 각 읍면별 지도자가 힘을 모음
- MZ새마을회원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고통을 분담하며 더불어 사는 새마을공동체를 이룸

#새마을공동체 #온기나눔 #좋은 이웃 만들기

### 부산 영도구새마을회



블루베리 향기로 이어지는 세대이음

#### 무엇을?

하나,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려 만드는 우리 동네  
둘, 하나 되는 공동체

#### 어떻게?

- 지역 청소년들이 블루베리 재배에 참여해 자연의 소중함을 경험
- 직접 기른 블루베리로 만든 머핀, 쿠키, 잼, 콩포트 등을 지역 어르신에게 전달

#### Point!

- 세대 간 소통과 정서 교류, 하나되는 우리 마을

#지역 공동체 실현 #세대 이음 #마을 활성화

### 인천 연수구새마을회



송도해변축제 먹거리 제공 및 새마을운동 실천

#### 무엇을?

하나, 인천 연수구의 대표 지역축제인 송도해변축제 지원  
둘, 축제에 모인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먹거리 제공

#### 어떻게?

- 축제장에 먹거리 부스를 마련해 추억의 분식과 음료를 제공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새마을지도자들이 술선행 축제 현장을 청소하는 등 새마을운동을 실천

#### Point!

-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대표 축제인 송도해변축제의 체험 관광객이 증가함
- 새마을운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함

#지역 대표 축제 #추억의 분식 #새마을운동 실천





### 광주 서구새마을회



동심으로 돌아가 웃음과 공감 나누기

#### 무엇을?

세대와 이웃이 함께하는 '어린이동요대회'를 통해 지역 공동체 소통과 정서적 유대 강화

#### 어떻게?

- 새마을문고가 주관한 행사를 통해 따뜻한 지역문화 확산
- 동요를 매개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노래하며 즐기는 무대 마련

#### Point!

- 어린이동요대회를 통해 동심으로 돌아가 웃음을 나누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룸

#동심 #세대 간 소통 #지역의 화합

### 경기 동두천시지회



깨끗한 동두천시만들기

#### 무엇을?

하나, 인도변 잡초 제거 활동

#### 어떻게?

- 관내 새마을지회 인근 유동 인구 많은 인도변 잡초 제거
- 주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깨끗한 동두천시만들기' 활동

#### Point!

인도변 잡초제거, 줍깅, 쓰레기 수거, 깨끗한 환경만들기

#공동체문화 조성 #인도변 잡초 제거 봉사 #좋은 이웃 만들기

### 대전 유성구새마을회



함께사는 따뜻한 유성, 어르신 효(孝) 위안잔치

#### 무엇을?

하나, 5월 가정의달 맞이 어르신 경로 위안잔치  
둘, 홀몸 어르신의 외로움을 달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 제고

#### 어떻게?

- 관내 70세 이상 홀몸 어르신 및 위로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판소리, 초청가수 공연, 난타 공연 및 오찬 대접

#### Point!

- 경로 위안잔치를 통해 어르신에게 공연 및 먹거리를 제공
-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활동을 알려 늘 새마을운동이 옆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드리고자 함.

#건강새마을 #고령화 대응운동 #어르신 효 위안잔치

### 경기 구리시새마을회



수해복구 봉사활동

#### 무엇을?

포천시 수해복구 봉사활동

#### 어떻게?

-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포천시 내촌면에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
- 포천시새마을회와 함께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전개

#### Point!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수해복구 활동

#공동체문화 조성 #수해 복구 #집중호우 피해 복구

### 울산 동구새마을회



도심 녹지공간 조성

#### 무엇을?

하나, 산림의 공익적 환경적 가치를 되새기면서 지속적인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 조성  
둘, 지역 주민들에게 힐링 공간 제공

#### 어떻게?

- 울산 동구 주민이 많이 찾는 등산로에 철쭉 1만 6,000그루 심기
- 철쭉이 잘 자라도록 동별 윤번제 물주기, 잡초 제거 및 환경정화 활동 실시

#### Point!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새마을운동이 앞장섬
- 주민들과 함께 50만 그루 나무 심기 동참 분위기 조성

#탄소중립 실천 #나무심기 #기후변화 대응

### 경기 광명시새마을회



온기나눔 밀반찬 만들어 나누기

#### 무엇을?

하나, 홀몸 어르신께 전달할 온기나눔 밀반찬 나누기

#### 어떻게?

- 광명시협의회와 부녀회가 관내 홀몸 어르신을 위한 밀반찬을 만들어 직접 전달

#### Point!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온기 나눔 실천

#함께새마을 #홀몸어르신 #사랑의 밀반찬 나누기 #온기나눔





### 문고 강원 춘천시지부



꼭꼭! 숨은 책 보물을 찾아라

#### 무엇을?

하나, 제4회 책 보물찾기 행사와 10개의 체험부스 운영  
둘, 문고 춘천시지부와 다가치보육 어린이집 14개 기관의 연합

#### 어떻게?

-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꼭꼭! 숨은 책 보물찾기’ 행사
- 4컷 가족사진 촬영, 캐리커처, 마술쇼, 풍선아트, 에코가방 만들기, 키팅만들기 등 10개 부스 운영
- 가족 단위로 참여한 주민 700여 명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

#### Point!

- 4년째 어린이집과 연합으로 행사 개최

#책 보물찾기 #새마을문고 춘천시지부 #새마을운동

### 강원 철원군새마을회



철원읍협의회와 부녀회의 ‘EM흙공 만들기’

#### 무엇을?

하나, 내 고장 하천환경보호를 위한 EM(유효미생물군)흙공 만들기  
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환경보호의식 고취

#### 어떻게?

- 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EM흙공을 만들며 하천환경보호는 물론 환경보호의식 교육

#### Point!

- 손으로 직접 흙공 반죽을 만지며 오감자극 발달
- EM흙공의 하천에서의 효과 인식

#환경보호 #남녀노소 #EM흙공

### 충북 괴산군새마을회



영농부산물파쇄지원단 운영

#### 무엇을?

하나, 관내 산불예방,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목표로 하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둘, 청정괴산청년연대에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며 녹색새마을운동 기여

#### 어떻게?

- 괴산군에서 관련 사업 공모에 따른 지회에서 사업 선정 후 청년연대 중심 진행
- 일년간 농업인들을 찾아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 Point!

- 관내 사업 공모에 선정 후 청년연대에서 사업진행으로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 #영농부산물파쇄지원단 #녹색새마을 기여

### 충북 진천군새마을회



어려운 이웃과 상생하는 땀과 열정

#### 무엇을?

하나,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새마을가족 간 유대 강화  
둘,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상생하는 행복한 공동체 실현

#### 어떻게?

- 1,000여 평의 휴경지에 고구마를 함께 경작하며 온기의 땀방울을 공유
- 수확한 고구마 일부를 48개 마을 경로당에 전달
- 나머지 판매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비로 활용

#### Point!

- 휴경지를 활용한 온기나눔으로 국토살리기에 동참
- 함께 심고, 함께 수확하며 새마을지도자들의 단합과 보람을 고취
-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상생하고 나누는 문화 확산

#공동체문화 조성 #휴경지 경작 #온기나눔

### 충남 예산군새마을회



수해농가 긴급구호 활동

#### 무엇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지역 복구 지원 및 구호물품 전달

#### 어떻게?

- 수해피해농가 구호활동(비닐하우스 토사 제거, 침수가구 구호물품 지원 등)

#### Point!

- 신속한 수해피해 복구
- 재난 현장 복구 및 지원 활동
- 희망나눔 공동체

#재해복구지원 #문화새마을 #이재민 구호

### 전북 부안군새마을회



탄소중립 - 자연환경 보전

#### 무엇을?

하나, 다시 입을 수 있는 옷과 폐농약병 등 버려지는 자원 수거  
둘,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과 탄소중립 운동 실천

#### 어떻게?

- 13개 읍면이 함께하는 자원재활용 수거 경진대회 개최
-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읍면별 홍보

#### Point!

- 판매수익금으로 이웃사랑 온기나눔 운동 실천
- 주민 모두가 함께 녹색생활로 선진 국민 의식 고취

#공동체문화 조성 #탄소중립 실천 #이웃사랑운동





### 전남 신안군새마을회



여름철 피서지문고

#### 무엇을?

하나, 여름 휴가철 지역 피서지(해수욕장, 계곡, 관광지 등)에 피서지문고를 설치·운영

둘, 관광객과 주민에게 무료 독서 공간과 도서 대여 서비스 제공

#### 어떻게?

- 연령대별 맞춤 도서를 준비해 지도자들이 직접 도서 정리, 대여 및 반납 안내
- 그늘 쉼터·평상 등 피서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Point!

- 가족 단위 피서객이 함께 책을 읽으며 세대 간 소통 유도
- 지역 관광 활성화와 함께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
- 주민 참여형 문화 사업으로 공동체 의식 강화

#문화공동체 #독서문화 확산 #건강한 여가생활

### 경북 성주군새마을회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 무엇을?

하나, 지역 공동체 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전달  
둘, 이웃을 존중하고 돌보는 공동체 정신 실천

#### 어떻게?

- 지역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대접

#### Point!

- 직접 만든 삼계탕을 제공하며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
- 새마을봉사단의 공식적인 첫 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전함

#새마을봉사단 #삼계탕 나눔 #이웃사랑 실천

### 전남 장흥군새마을회



그림으로 나누고 퍼즐로 이어가는 행복공동체

#### 무엇을?

하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재능나눔 봉사활동  
둘, 컵 그림 그리기 및 퍼즐 맞추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서적 교감과 건강한 여가활동 제공

#### 어떻게?

-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이 직접 준비한 재료로 프로그램 진행
- 컵 그림 활동과 퍼즐 맞추기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참여와 교류 촉진
- 활동 후 작품 전시 및 다과 나눔으로 성취감과 공동체 유대 강화

#### Point!

- 함께하는 체험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에 위로와 즐거움 제공
- 두뇌 자극·소근육 운동과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생활 활력과 공동체 유대 강화

#재능나눔 #소통공간 #행복공동체

### 경북 의성군새마을회



알뜰 나눔 장터 운영

#### 무엇을?

하나,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  
둘, 나눔 문화 확산

#### 어떻게?

-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판매를 통해 자원 순환 인식과 회원 간 교류와 단합 도모

#### Point!

-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을 봉사활동 재원으로 활용

#자원 재활용 #환경 보호 #나눔 문화 확산

### 경북 고령군새마을회



고령을 지키는 초록 손  
(리사이클링 키템 만들기)

#### 무엇을?

하나, 아동과의 소통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재활용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교육  
셋,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 어떻게?

- 올바른 환경 상식을 O/X 게임 형식으로 교육
- 버려지는 양말목과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리사이클링 체험
- 키템(새마을·청년새마을연대 마크, 마을이·새벽이 캐릭터) 만들기

#### Point!

- 재활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

#녹색새마을운동 #리사이클링 #자원순환 교육

### 경남 거제시새마을회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오늘 마음 어때?'  
감정표현 독서활동 프로그램

#### 무엇을?

하나, 발달장애인의 감정 표현 능력, 자존감, 정서적 안정 향상  
둘, 지역사회와의 소통 확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문화 조성

#### 어떻게?

-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말, 그림, 행동 등으로 표현
- 감정 단어에 익숙해지고, 나의 감정을 타인과 나눔

#### Point!

- 책 읽기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
- 새마을지도자와 봉사자가 함께 참여해 교류하고 따뜻한 공감을 나누며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장을 이룸

#지역과 공감 #함께하는 독서 #따뜻한 소통





현장 클로즈UP 경남·제주

경남 함안군새마을회



사랑의 미숫가루 나눔

무엇을?

하나, 고령층과 건강 취약계층의 손쉬운 영양 섭취 지원  
둘, 공동체 구성원의 소속감과 유대감 강화

어떻게?

- 내 고장 곡물로 미숫가루 제작 및 소포장
- 어르신과 취약계층 및 시설을 대상으로 전달 및 배부

Point!

- 함안군에서 직접 재배한 햇곡식으로 만든 건강식 지원
- 마을주민과 지역사회의 후원 및 참여를 통한 새마을운동 활동 범위 확대

#건강새마을 #공동체 활성화 #고령화 대응

경남 창녕군새마을회



집중호우 피해현장 수해복구 지원활동

무엇을?

하나,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신안면 수해현장에 긴급파견, 협력 및 유대 강화  
둘,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

어떻게?

-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창녕군 새마을지도자 60여 명이 적극적으로 참여
- 토사 제거, 가재도구 정리, 농가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

Point!

- 수해 복구작업에 힘을 모아 안전하고 질서 있게 마무리
-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를 향한 실천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 #협력 #좋은 이웃 만들기

문교 제주 제주시지부



‘제2회 새마을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한마당’ 개최

무엇을?

‘새마을문교! 새마을작은도서관을 말하다’를 주제로 독서문화 한마당 개최

어떻게?

- 제주시민 및 문교지도자 400여 명이 함께하는 재능기부동아리 7팀 참여
- 드로잉, 뜨개캐슬 등 작품 전시와 우쿨렐레, 통기타, 오카리나, 라인댄스, 둘하 나시울림의 문화 공연
- 어린이와 학생이 참여하는 독서골든벨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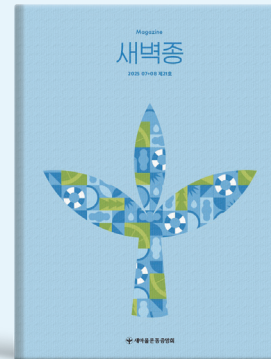
- 지역주민에게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 홍보의 장 마련
- 새마을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재능기부동아리의 숨씨 자량, 교류의 장 마련
- 지역주민과 회원들에게 독서 문화와 만남의 기회 제공

#문화새마을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독서문화

새마을  
라운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새벽종> 07+08월호 독자 의견



장우익

‘내 이웃을 내 가족처럼’이라는 말처럼 서로를 돌보고, 손을 잡아줄 때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점이 와닿았습니다. 소외된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따뜻한 손길 한번 내미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최진성

양재천에서 새마을정신을 이어가는 서울 강남구새마을회의 글을 읽었어요.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져 자연을 지키는 모습에서 앞으로 새마을운동이 계속되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장혜숙

우리의 노력과 동전 하나가 만든 기적을 읽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카드와 휴대전화만 들고 다니는 터라 동전은 잘 쓰지 않다 보니, 무심코 방치된 동전이 많은데요. 이런 동전을 모아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이 감동입니다.



박민우

요즘은 대학생들의 농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새마을운동의 미래 주역인 대학생들이 서로 돕고 힘을 합쳐 더 나은 마을과 국가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젊은 세대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QR코드 스캔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감은 다음 호에 소개되며, **선정되신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2025년 매거진 <새벽종> 만족도 조사

## 당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새마을운동의 주요 소식을 전하는 격월간 매거진 <새벽종>이  
새마을가족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더 유익한 매거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새마을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조사 기간** 2025년 9월 25일(목)부터 10월 31일(금)까지

**대상** 매거진 <새벽종>을 읽은 분 누구나

**조사 내용** 구독 방법 및 빈도, 콘텐츠 및 디자인 만족도, 웹진 활용도, 개선 방향 제언 등

**참여 방법** [naver.me/FjC2cX4Z](https://naver.me/FjC2cX4Z) 링크 접속 또는 하단 QR코드 스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 EVENT

####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고 선물 받아가자!

설문에 응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정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는 당첨자 선물 발송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 만족도 조사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Global Saemaul Ministerial Meeting & Global Saemaul Leadership Forum 2025

2025 새마을글로벌협력국장관회의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September 16<sup>(Tue)</sup> - 19<sup>(Fri)</sup>, 2025  
Lahan Select Gyeongju



Hosted by



Organized by

